



#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대가 열린다

## 전국호환 교통카드 국가표준 제·개정

현재 교통카드 이용자는 지역별로 교통카드를 소지하거나 또는 현금 등의 사용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설교통부와 IC카드연구센터 등 민·관 통합표준화 협력을 위한 “교통카드기술표준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선불 IC카드, 지불 단말기 등 13종의 국가표준규격(KS)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민간 사업자간의 기술통합 난항으로 교통카드 전국 호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민 관 공동협력에 의한 자율적 표준화 협력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공동표준(안) 도출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내산업 실정에 합당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된 “교통카드 전국호환 국가표준”을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 11월 기술표준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카드 전국 호환 관련 규격을 KS표준으로 제·개정 고시함에 따라 내년 부터 KS표준을 반영한 교통카드 발급이 본격화 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이용자는 복수의 카드소지 또는 현금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게 되고, 교통카드 관련사업자는 국가표준에 의한 규격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KS표준을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IC카드포럼”과 연계하여 우리표준을 아시아 교통카드 단일 표준으로 채택시키고 나아가 국제표준으로의 상정을 위한 민·관차원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정부부처와 표준화 협력으로 추진중에 있는 전자여권, 선원신분증 등을 국제표준에 기반을 둔 국가표준으로 금년중에 제정하여 2007년부터 우리산업에 적용함

으로서 글로벌 표준의 신속한 산업화 대응으로 세계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전국호환 교통카드 규격 제·개정 현황

구분	규격명	규격번호	제정정일
개정(4종)	개정(4종)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 응용모듈(SAM) 규격 제 1부 : 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KS X 6923-1	• 2006.10.31 개정고시 (2006-0620호)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응용모듈(SAM) 규격 제 2부 : 명령어 및 프로토콜	KS X 6923-2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응용모듈(SAM) 규격 제 3부 : 암호 알고리즘	KS X 6923-3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응용모듈(SAM) 규격 제 4부 : 품질인증 및 관리	KS X 6923-4	
제정(9종)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제 1부 : 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KS X 6924-1	• 2006.10.31 제정고시 (2006-0618호)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제 2부 : 명령어 및 프로토콜	KS X 6924-2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제 3부 : 암호 알고리즘	KS X 6924-3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제 4부 : 시험인증 및 관리	KS X 6924-4	
	선불IC카드용지불단말기 제 1부 : 물리 규격	KS X 6925-1	
	선불IC카드용지불단말기 제 2부 : 논리 규격	KS X 6925-2	
	선불IC카드용지불단말기 제 3부 : 보안 규격	KS X 6925-3	
	선불IC카드용 충전단말기 제 1부 : 물리 규격	KS X 6926-1	
	선불IC카드용 충전SAM 제 1부 : 물리 규격	KS X 6927-1	